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지역언론 톺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톺아보기2021-018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톺아보기] 부산시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쓴 지역언론, '요즈마그룹' 검증에 책임 없을까?
• 날 짜	2021년 7월 14일

### 부산시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쓴 지역언론 '요즈마그룹' 검증에 책임 없을까?

지난 7월 6일, JTBC 뉴스룸은 <박형준 '1조원대 창업펀드 공약' MOU 요즈마그룹 추적>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부산시와 MOU를 맺은 요즈마그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창업펀드 조성은 박형준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당선 직후 곧바로 MOU를 체결해 지역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시부터 창업펀드 조성 파트너인 요즈마그룹에 대한 의혹과 1조가 넘는 펀드 조성의 실효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요즈마 그룹의 실체를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부산시-요즈마그룹 MOU체결(4/13) 이후부터 Jtbc보도(7/6) 이전까지 '요즈마그룹'에 대해 무엇을 검증했을까요?

## '박형준 1호 공약' 1조 2000억 펀드 '급물살'

오늘 부산시-요즈마 그룹 협약 부산벤처스주식회사 설립 예정 (주)한창 등 지역 기업도 동참 2026년까지 자금 조성 계획 부산 중소·벤처 '인큐베이팅' 지원

00억 원을 목표로 주주들 모집 중이다. 요즈마그룹 외에도 부산에 본사를 둔 (주)한창 등이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이미 부산벤처스 설립 자본금 납입 확인서도 작성한 상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요즈마그룹 회장, 요즈마그룹코리아 대표뿐만 아니라 부산벤처스에 주주로 참여할 회사들의 대표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지원에 참여할 방침을 세우고, 향후 자본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한다. 다만 부산벤처스에 직접 투자할지, 아니

<그림 1> 부산시-요즈마 펀드 MOU체결 보도(부산일보, 4/14, 1면)

## 부산 1조2000억 펀드 조성 시동... 2차 창업 플랫폼 허브도 만든다



시-요즈마그룹 업무협약 체결 우수 중·벤처 유치하고 육성 2026년까지 자금 조성 목표 박형준 시장 공약 이행 가속도 자본금 100억 '벤처스' 만들어 핀테크·해양신산업 등에 투자

라엔 대사와 이니브 골드버그 경제참사관, 요즈마그룹 코리아 이원재 대표, 박세정 부산 데우스밸리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를 부산에 구축하고 우수권 벤처창업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1조

만 연구소와의 기술사업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특화형 창업투자사 '(가칭)부산벤처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재 자본금 100억 원을 목표로 주주들 모집하고 있는데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와 그린테크, 핀테크, 푸드테크, 부산특화형산업 해양신산업 등에 균형 있게 투자할 방침이다.

요즈마그룹 이강 애플리히 회장은 "부산

빅 시장은 '인구가 적은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창업대국으로 이끈 스타트업 육성 전문기업 요즈마그룹과 함께하면 지역 강소기업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1조2000억 원의 펀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 정부

<그림 2> 부산시-요즈마 펀드 MOU체결 보도(국제신문, 4/14, 3면)

박형준 시장 취임 엿새 만인 4월 13일, 부산시는 요즈마그룹과 투자업무협약을 체결 했고 지역 언론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부산일보 <박형준 1호 공약, 1조 2000억 펀드 속도 낸다>(4/13, 1면), 국제신문 <부산 1조 2000억 펀드 조성 시동...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로 만든다>에서 요즈마그룹을 ‘연간 운용액이 약 4조 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방송 3사도 단신으로 글로벌투자 플랫폼 구축으로 부산시의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요즈마그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여당 시의원 vs 야당 시장’의 구도에만 주목하여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부산일보의 <박형준 ‘1조 2000억 펀드’ 열쇠 쥔 요즈마그룹 운용능력 논란>(4/19, 6면), <요즈마그룹, 부산특화형 글로벌펀드 운용 불참>(4/23, 13면)와 국제신문의 <시장님 ‘1조 원대 창업펀드’ 실현 가능한가요>(4/21, 12면)를 통해 일각에서 요즈마그룹의 운용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목표액수도 커 회의적 시각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요즈마그룹코리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요즈마그룹은 부산시의 창업펀드 운용 주체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사에서도 요즈마그룹에 대한 정보는 부산시의 보도자료와 요즈마의 취재원에 기반하고 있어, 창업펀드 조성의 필요성과 의미, 요즈마그룹의 적절성, 협약 이후 진행과정 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매체	제목
국제신문	부산 1조2000억 펀드 조성 시동...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도 만든다(4/14)
	[경제 포커스] 시장님 ‘1조 원대 창업펀드’ 실현 가능한가요(4/21)
	박 시장 시정질문 데뷔무대...여당과 요즈마 실체 놓고 공방(5/4)
부산일보	‘박형준 1호 공약’ 1조 2000억 펀드 ‘급물살’(4/13, 1면)
	박형준 1호 공약 ‘1조 2000억 창업펀드’ 속도 낸다(4/13, 온라인)
	박형준 ‘1조 2000억 펀드’ 열쇠 쥔 요즈마그룹 운용능력 논란(4/19)
	요즈마그룹, 부산특화형 글로벌펀드 운용 불참(4/23)
	요즈마는 유명 회사? 실체 싸고 정면 충돌(7/9)
KBS부산	부산시-요즈마그룹 협약...“창업생태계 활력”(4/13, 단신)
	요즈마 펀드 관련 부산시-시민단체 공방 가열 (7/8, 단신)
부산MBC	부산시, 요즈마그룹과 혁신기업 투자플랫폼 구축(4/13, 단신)
	시민단체 "부산시, 요즈마 그룹 협약 공개하라"(4/27, 단신)
	1조 2천억 요즈마 펀드? "공동 투자 않겠다" (7/8, 윤파란)
KNN	부산시, 요즈마그룹과 글로벌투자 플랫폼 구축(4/13, 단신)
	박형준, 시의회 신고식 ‘요즈마그룹 공방’(5/3)
	"불법사찰·요즈마 펀드 관련 박형준 사퇴해야" (7/8, 단신)

<표 1>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요즈마그룹’ 관련 지역언론 보도

\* 는 JTBC 보도 이후 지역언론 보도

JTBC의 요즈마그룹 실체 추적 보도 후, 요즈마그룹코리아는 반박 기사를 냈고 지역시민사회에서는 박형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향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부산일보는 <요즈마는 유명 회사? 실체 싸고 정면 충돌>(7/9, 5면)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요즈마그룹 실체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부산시와 요즈마 측의 반박 내용을 함께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요즈마와 MOU까지 체결했지만, 후보 시절 강조했던 것과 달리 요즈마그룹이 부산의 창업 펀드 구성에 얼마나 역할을 해 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는 <1조 2천억 요즈마 펀드? "공동 투자 않겠다">(7/8)에서 지난 3월 26일 있었던 후보자토론회 장면을 보여주며 박형준 시장이 '요즈마그룹이 300억짜리 펀드를 성공시킨 노하우로 부산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박형준 시장이 후보자시절 한 발언과 최근 부산시가 낸 입장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KBS부산과 KNN은 단신으로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요즈마펀드'를 둘러싼 공방을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소식과 부산시 측의 반박 입장을 짧게 전달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선거 시기에는 부산시도 펀드 구성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이번 입장문에서는 부산시 예산 투입은 없다며 말 바꾼 것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국제신문은 JTBC 보도 이후, 요즈마 관련 보도는 없었습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어 시행하면 제기되는 의혹을 반드시 짚어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글로벌 창업 플랫폼' 활성화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검증 없이 부산시가 내세운 성과에만 주목했던 지역언론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요즈마그룹'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공방프레임으로 전달하지만 말고, 언론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시정감시 역할을 담당하길 바랍니다.

<끝>